

朴대통령 '길라임' 논란 속 새 드라마 쓴 김은숙 작가

“도깨비” 더 재밌을텐데 어찌죠”



tvN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내달 2일 첫방
‘태양의 후예’ 이응복PD와 공동작업
공유·김고은·이동욱 등 케미…시청자 기대

도깨비는 사람 혹은 동물을 형상한 잡된 귀신을 가리킨다. 비참한 힘과 재주로 사람을 홀리고 포악을 떨다가도 때론 알맞은 장난을 친다.

tvN의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는 이런 전설 속의 귀신, 도깨비를 더 할 수 없이 멋지고 세련된 현대적 캐릭터로 살려냈다.

‘도깨비’는 고독한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인간 신부가 필요한 낭만적인 도깨비의 이야기를 그린다.

‘도깨비’는 올해 최고 흥행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만든 이응복 PD와 김은숙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작가는 최근 열린 ‘도깨비’ 제작발표회에서 “도깨비”는 이상하고 아름답고 쓸쓸하고 찬란한 판타지 드라마”라고 소개하고 “하이ไลท์ 영상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난다. 소름 끼칠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타지 장르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오후 5시 어린이용으로 틀 것인지, 오후 8시 어른용으로 틀 것인지”라며 “이런 드라마도 유독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짝어놓고 보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연출을 맡은 이 PD도 “드라마는 재밌어야 한다”며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을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극중 935살의 번듯스러운 도깨비 김신 역은 배우 공유(37)가 맡았다.

공유는 “드라마를 두려웠던 게 있었는데 작가님, 감독님과 3시간 정도 미팅을 한 뒤 마음을 열고 같이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도깨비’ 전장에서 피 묻은 갑옷을 입고 마성을 뿜

어내는 무신에서 매력적인 현대판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변신한다.

공유는 “이렇게 스케일이 큰 드라마는 건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다”면서 “어려운 신들이 멋지게 구현된 걸 보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의 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깨비 신부 지은탁은 김고은(25)이 연기한다. 죽은 혼을 보는 지은탁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열아홉 살의 고3 수험생이다.

김고은은 “전작들에서도 좋은 선배님들과 작업해서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공유 선배님과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유에 대해서는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고 저랑 성향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장난도 많이 치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출연했던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 연기한 여주인공 홍설과 지은탁을 비교했다.

“치인트의 홍설은 정말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은 인물로 현실적인 연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번 작품은 홍설과 많이 다르고 캐릭터가 좀 더 확실해서 대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고은은 얼마 전 교제 사실이 공개된 배우 신하균(42)으로부터 “드라마는 체력싸움이니깐 건강관리 잘하라”는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도깨비’에는 도깨비 외에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와 도깨비를 호위하는 가신의 운명을 타고난 재벌남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도깨비의 한집에서 동거하는 잘 생기고 세련된 저승사

자 역은 이동욱(35)이, 도깨비의 가신인 유덕화 역은 그룹 비투비 멤버 육성재(21)가 맡았다.

여기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저승사자의 마음을 흔드는 운명의 상대가 가세한다. 절없는 치킨집 여자 사장 씨는 유인나(34)가 연기한다.

이동욱은 “평소 잘 아는 공유 형과 함께 해서 좋고 잘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하는데 현장에서 호흡이 잘 맞았다”며 “열심히 연기해서 재밌고 즐거운 드라마 보여주겠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유인나는 혈혈단신, 천애고아로 절없이 사는 게 가장 편하다는 세상 이치를 깨달은 치킨집 여자 사장 씨를 연기한다.

유인나는 “운 좋은 역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김은숙 작가님과 ‘시크릿가든’에서 함께 했는데, 어느 캐릭터 하나 소외받고 미움받지 않게 대본을 써주셔서 모든 배우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음병원에서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길라임이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는 이날 길라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작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 드라마 ‘도깨비’가 더 재밌을 텐데 어떡하죠”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시국에 제작발표회를 하게 돼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고 울고 싶은 사람은 실컷 울고 웃고 싶은 사람은 실컷 웃을 수 있는 드라마니까 잘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도깨비’는 금토드라마 ‘더케이투(THE K2)’ 후속으로 다음달 2일 오후 8시 첫 방송 된다.

S.E.S 14년만의 컴백



신곡 ‘러브 [스토리]’ 28일 발표

1세대 걸그룹 S.E.S가 오는 28일 신곡 ‘러브 [스토리](Love [story])’를 공개하며 14년 만에 컴백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S.E.S의 신곡 발표와 함께 단독 콘서트 개최 등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리멤버’(REMEMBER)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리멤버’ 프로젝트는 SM의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 ‘스테이션’(STATION)을 통해 공개되는 ‘러브 [스토리]’로 시작을 연다. S.E.S는 데뷔 일인 11월 28일 0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러브 [스토리]’는 SM 대표 작곡가 유영진과 유한진이 S.E.S의 히트곡 ‘러브(Love)’를 재해석해 편곡한 노래다.

또 S.E.S는 다음 달 30과 3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강홀에서 단독 콘서트 ‘리멤버, 더 데이’(Remember, the day)를 열 예정이다.

콘서트에 이어 내년 1월 2일 스페셜 앨범도 발매할 계획이라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7년 데뷔한 S.E.S는 2002년 공식 해체하기까지 핑클과 함께 1세대 걸그룹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바다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유진은 배우로 활동했으며 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바다와 슈는 MBC TV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서 S.E.S 무대를 꾸며 화제가 됐다.

한편 SM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의 20%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연예정보 프로 ‘본격연예 한밤’으로 부활

김구라 MC로 내달 6일 첫방

SBS TV가 ‘한밤의 TV연예’를 대신해 새로운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을 다음달 선보인다.

SBS는 다음달 6일 오후 8시55분 ‘본격연예 한밤’을 첫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MC는 방송인 김구라와 SBS 박선영 아나운서가 맡는다.

SBS의 간판 연예정보 프로그램으로 12년간 방송됐던 ‘한밤의 TV연예’는 시청률 하락으로 지난 3월 막을 내렸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말 겨루기(재) 50 야생일기(재)	00 수목드라마 <오마이 금비>(재)	00 불어라 미용아 (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 뉴스 2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별별가족(재)		30 양코르 MBC 다크프라이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2	00 특집다큐 행복한 나눔의 밥상, 푸드뱅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닥터 365
3	00 600회 특집 생로병사의 비밀-뇌의 기적(재) 55 튜닝생활제 조 (재)	00 자드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1 10 헬로키즈 야!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수목드라마 <오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고용허가제 12년, 이방인에서 동반자로)	10 해피 투게더	10 미래일기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2016 목포가요축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음 10월 25일 庚戌)

<p>子</p> <p>48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자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60년생 한시름 나도 되겠다. 72년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갖가지 변수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84년생 기회가 제대로 왔으니 기탄없이 역량을 발휘하라. 행운의 숫자 : 15, 24</p>	<p>午</p> <p>42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도를 기약한다. 54년생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66년생 간단하고 명료함이 유익하다. 78년생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1, 87</p>
<p>丑</p> <p>49년생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합쳐져서 매우 곤혹스럽겠다. 61년생 재운의 기쁨이 릉 것이다. 73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들까지 감안해야 안전할 것이다. 85년생 기대했던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지 오래됐다. 행운의 숫자 : 91, 23</p>	<p>未</p> <p>43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55년생 예상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67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것이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79년생 노력에 대한 알찬 성과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53, 63</p>
<p>寅</p> <p>50년생 종합적으로 살펴봐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62년생 애매하다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74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86년생 발상하지 말고 끝까지 항구하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6, 57</p>	<p>申</p> <p>44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되 대세에 편승하라. 56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68년생 심층도에 비례해서 수확할 것이니 섬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이다. 80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0, 27</p>
<p>卯</p> <p>51년생 항상 변수가 숨어 있는 법이니 쉽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63년생 충족시키기에 너무도 미약한 진로에 놓여있다. 75년생 연애에서 벗어나고 봐야 한다. 87년생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얻는 바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48, 39</p>	<p>酉</p> <p>45년생 익히 잘 아는 바라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57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한다. 69년생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으리라. 81년생 마음만 먹으면 흉도 복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8, 02</p>
<p>辰</p> <p>40년생 성과가 있었다. 52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64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책이다. 76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86, 22</p>	<p>戌</p> <p>46년생 길사가 모여져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8년생 복잡함을 동반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70년생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사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82년생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니 방도를 강구하라. 행운의 숫자 : 56, 03</p>
<p>巳</p> <p>41년생 손서를 무시한다면 혼란에 빠진다. 53년생 계속해도 된다. 65년생 말은 아끼고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77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89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심기일전 하라. 행운의 숫자 : 69, 20</p>	<p>亥</p> <p>47년생 꼭 만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59년생 기회를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위상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하다. 71년생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 83년생 허심탄화하게 상의한다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1, 1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